

녹용 효능, 수확시기 부위별 차이 검증

'97한국-뉴질랜드 녹용 효능 연구 결과 세미나

녹용의 효능을 현대 과학적으로 밝혀낸다.

「'97 한국-뉴질랜드 녹용 효능 연구 결과 세미나」가 뉴질랜드 양육위원회 주최로 지난 9월3일과 5일 서울 조선히호텔과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뉴질랜드 농업연구센터 제임스 밀러 서티박사는 「뉴질랜드 녹용의 효능 연구」라는 발표를 통해 『뉴질랜드산 녹용이 전통적으로 사용돼 오던 모든 치료 영역과 새로운 치료영역에 효과적인 것을 입증하였다』며 연구 실험을 통해 성장 촉진과 면역 증강작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녹용의 건조방식이나 부위에 따라 효능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연구해냄으로써 녹용의 연구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역 증강효과의 경우 경질의 사슴뿔이 탈각된 후 40일과 85일이 지난 후 채취한 것은 상대가 하대에 비해 우수한 반면 60일 경과한 후 채취한 녹용에서는 이와 반대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녹용은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으나 건조하는 방식에 의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동결 건조한 녹용추출물은 성장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열로 불활성화시켰을 때는 성장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면역증진의 경우 열로 불활성화시킨 것이 더욱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고 밝혀 이제까지 한의학에서 녹용의 효능에 대해 상대와 하대의 차이, 채취시기에 따른 차이가 현대과학적 실험을 통해 사실임이 입증됐다.

이같은 연구는 지금까지 녹용의 규격은 오관에 의한 관능검사나 건조감량, 회분 시험 등 주로 외부형태학적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있

어 수확시기나 가공방법에 의한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녹용의 규격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약효와 규격과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녹용의 규격 정립과 관련하여 리디포드 뉴질랜드 양육위원회 회장은 4일 있는 기자회견에서 『녹용은 뉴질랜드 뿐만이 아니라 한국, 소련,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만큼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자』고 제의했다.

뉴질랜드의 녹용연구와 관련하여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의사는 『녹용을 약재로 활용하는 국가도 아닌 뉴질랜드가 상품관매를 위해 이같은 연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수한 의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능이 현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한약재에 대해서도 이같은 연구 노력이 있어야만 한의학의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뉴질랜드의 이같은 연구는 한의학의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업계도 양질의 한약재를 생산·연구하고 아울러 마케팅기법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중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는 「뉴질랜드 녹용의 효능 연구」와 함께 「녹용이 난소제거로 유발한 암컷 흰쥐의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안덕균 경희대 한의대 교수)과 「녹용에 대한 임상적인 효능」(류기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이 발표됐다.

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는 「녹용의 품질규격」(원도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녹용추출물이 항암제 부작용의 경감작용에 관한 연구 결과」(홍남두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등이 발표됐다.*